



교육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과 사회적 소외계층의 평생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헌신한 평생교육 기관이나 단체. 학습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공하고 이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한 교육기관 및 단체

시민교육센터(군산청학야학교)(2005년 교육기관·단체 부문 대상)

시민교육센터(군산청학야학교)는 군산시의 교육소외계층을 위해 41년 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의 약자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1965년 3월 재건국민운동 중앙회 군산시 위원회에서 '재건학교'로 설립한 이래 시민교육센터(군산청학야학교)에서는 농촌지역에 있는 비문해자의 교육을 위하여 5개 지역 면사무소와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파견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군산 본원에서는 3단계 3개반으로 구성된 한글반과 1개 반의 산수반으로 구성된 문해교육 과정, 중입검정고시와 고졸검정고시 과정 3개반, 문해교육 정보화지원사업과 영어기초교육 1개 반과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정확보와 교사 수급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군산대학교 내 자원봉사 동아리, 주변 5개 대학의 연합동아리를 조직하여 활용하고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여 직장인과 주부들의 자원봉사를 유도하여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교사를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교육센터(군산청학야학교)의 활동은 소외계층을 위한 살아있는 평생교육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기초 자치단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한 기초 자치단체

광명시(2005년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광명시는 1999년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 한 후, 평생학습도시를 역점 정책 사업으로 선정, 과감한 예산 투입과 국단위 평생학습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푸른 광명 21' 의제로 '일상생활 속의 평생학습문화 정착화'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 토론회',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평생학습을 강조 하고 있다.

2002년부터 매년 광명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해 온 광명시는 2005년 제4회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광명시는 지역적 과제를 개선하면서 실질적으로 광명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는 우리나라 대표 평생학습도시이다.

이천시(2005년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십포니평생학습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이천시는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학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 실현, 지역 공동체 등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주민자치학습센터'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지역의 모범적인 시민을 선정하여 '평생학습인(Lifelong Learner)' 상을 수여하고, 이를 모델로 평생학습 리더육성과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오고 있다. 이천시는 시 전체의 슬로건과 같이 평생학습을 통해 십포니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평생학습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생학습대상 심사 준거는?

개인학습자 :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지속, 평생학습의 과정을 통한 자기 개발과 성숙, 학습 결과의 증거 및 성과, 지식의 창의적 습득 방법 및 적용 노력, 지식의 활용 및 사회적 공헌 등

성인교육자 : 리더십, 열정과 헌신,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기개발 노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수방법 개발과 운영, 학습자들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성과, 사회적 공헌 등

학습동아리 :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열정, 민주적 운영 절차 및 의사결정,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개인의 능력 향상, 학습동아리 활동의 추후 발전 가능성, 사회적 공헌 등

교육기관 및 단체 :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로 활동해 온 기간, 프로그램 계획, 수행과정, 추진활동의 전문성 및 지역특성 반영 정도, 타기관과의 프로그램 차별성 및 참신성, 프로그램의 파급효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

기업 : 교육체계 구축 정도, 조직구성원의 동기 유발 제도 활용, 학습을 통한 업무시스템 설계·운영·혁신, 학습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가치창출, 사회공헌 활동 및 제도 운영 정도 등

기초자치단체 : 평생학습 사업 추진목적과 비전의 적절성, 자치단체 평생교육추진 조직 구성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평생학습 조성 사업 추진 전략의 적절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성과 및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효과 및 기여도 등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중앙일보 홈페이지(<http://news.joins.com>) 또는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edi.re.kr>) 공지사항 양식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510호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대상' 담당자 앞

■ 문의 전화

02)3461-0238, 2057 christlike@kedi.re.kr

■ 접수마감

2006년 10월 20일(당일 소인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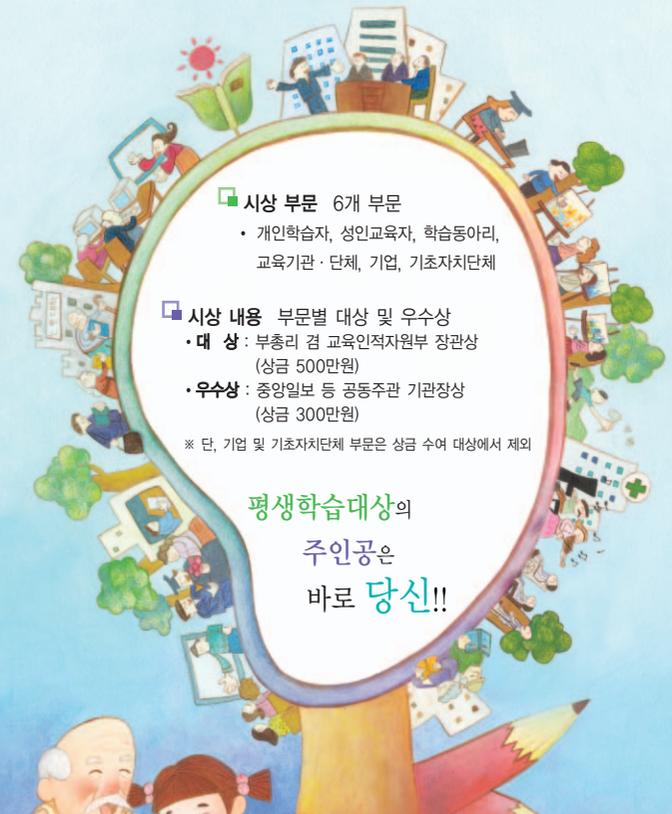
■ 시상식

2006년 12월 15일(금)

2006

평생학습大賞

주인공을 찾습니다



■ 시상 부문 6개 부문

- 개인학습자, 성인교육자, 학습동아리, 교육기관·단체, 기업, 기초자치단체

■ 시상 내용 부문별 대상 및 우수상

- **대상**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
- **우수상** : 중앙일보 등 공동주관 기관장상 (상금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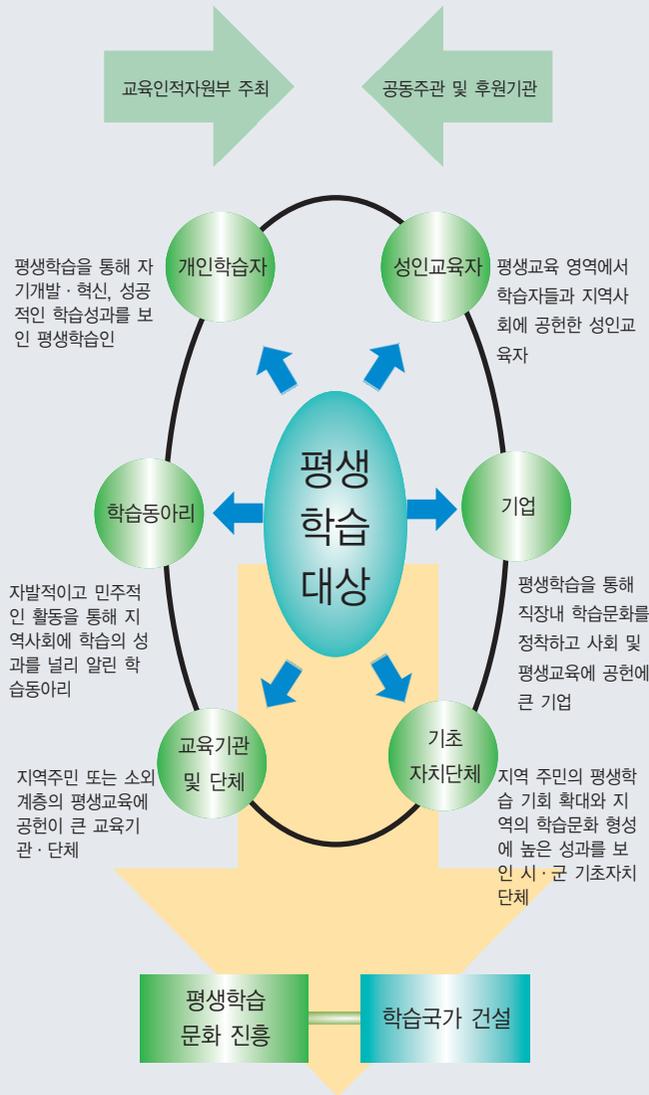
※ 단, 기업 및 기초자치단체 부문은 상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

평생학습대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 **주최** 교육인적자원부
- **주관** 한국교육개발원, 중앙일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 **후원** UNESCO한국위원회, 한국국제노동재단,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한국국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평생학습대상(Lifelong Learning Awards)이란?



사업운영 지원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대상 성공사례 살펴보기

개인 학습자

끊임없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자기개발에 성공하여 개인 평생학습 문화 혁신에 기여한 자

김순진 (주)놀부 대표이사(2005년 개인학습자 부문 대상)

초등학교 졸업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김순진씨는 여러 사업에서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다 1987년 5월 보쌈집을 개업 했고, 지금의 (주)놀부로 확장할 수 있었다. 배움에 대한 변함없는 갈망은 1991년 불혹을 넘긴 나이에 양원주부학교와 일성여자상업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입학자격과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되었다.

이 후, 사업의 성장과 함께 학습에 매진하면서 1997년 서울보건전문대 전통조리와 야간과정을 입학하여 우리나라 전통음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1999년 우송대학교 관광경영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여 2001년 '우송대학교 졸업생 최우수상'과 경영학사를 받게 되었다. 2003년 '외식산업품질에 대한 연구논문'으로 경영학석사를, 같은 해 경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현재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배움의 열정은 있으나 기회가 없는 이들을 위해 1989년 놀부 장학회를 설립하였고, 2002년부터 '놀부 의식논문 현상공모'를 통하여, 2005년까지 56명과 공모수상자 9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성인 교육자

다양한 평생교육 영역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현장에서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많은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교육적 영향을 발휘하여 평생학습 확산에 기여한 자

정찬남 한국문해기초교육연합회(2005년 성인교육자 부문 대상)

35년 동안 교육 소외자를 위해 헌신해 온 정찬남씨는 한국 사회교육현장에 담겨 있는 여성의 인권과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한국평생교육의 산 증인이다.

1975년 대학원에 다니면서 한국부인회경북지부 사업부장직을 맡고, 1978년 서울에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설립하여 여성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후 한국여성생활연구원 부설 여성사회교육센터를 열어 주부를 대상으로 주야간 국어어학교(중고), 주야간 문해교육 및 기초교육과정 등을 개설하고 주부 대학, 미혼 여성을 위한 혼인 전 교육인 신부대학을 운영하여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해 국립 경도대학교 국립 할머니 센터를 1980년부터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노인들의 여가와 건강 유지를 위하여 노력했고, 가출청소년을 위한 센터를 제공하여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성인 문해 교육을 위한 마음에 비문해자들을 위한 교육교사, 야학교사, 노인대학 담당자 교육과 문해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교재를 집필하며 한국문해교육 연구센터를 발족하여 문해지도자 교육, 문해교육관련 뉴스레터 발간, 금빛봉사단 문해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학습 동아리

자기개발을 도모하는 개인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여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 학습동아리

광명YMCA 등대(2005년 학습동아리 부문 대상)

광명 하안 단지 12개 마을을 중심으로 결성된 '차지와 나눔의 따뜻한 생활공동체'인 광명YMCA 등대(이하 등대)는 1995년 3월 광명YMCA 창립과 함께 시작하였다.

등대는 회원을 촛불로 '나 자신의 따뜻한 불 밝힘이 퍼져 세상을 향한 불 밝힘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90개로 시작한 촛불이 현재 280여개로 늘어났다. 소모임을 기본 조직으로 4~6개의 촛불이 하나의 등대를 형성하며, 현재 48개의 등대가 활동하고 있다.

등대모임에서는 매주 1회 일정한 시간에 모여, 지난 주 생활을 나누는 생활 나눔과 다음 주간 생활 계획 세우기, 공동체 기원 등으로 구성된 1부, 마음 나눔과 촛불들의 성장, 자신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인 2부 활동 나눔으로 구성 되어 있다.

등대가 모여 마을을 형성하며 3~10개 등대가 1개의 마을을 구성하여 매년 1회 등대 간 친목과 사귀를 위한 촛불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고, 아나바다 나눔 장터 사업, 마을 도서관 만들기 사업, 놀이터 환경 개선 사업, 마을 축제 등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모임(위원회)에는 의정감시활동, 생활제 위원회, 우리의 먹거리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임, 독서위원회, 사귀위원회, 골목위원회 등이 있다.

등대는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회원의 생활개선, 건전한 생활문화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보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지향하며 실천하는 살아 있는 학습동아리이다.

기업

종업원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기업으로 기업 구성원을 위한 학습지원을 통해 직장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

유한킴벌리(2004년 기업 부문 대상)

유한킴벌리는 1970년 설립 이래,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익한 제품 생산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한다는 회사의 사명 하에, 국내 최초로 여성생리대, 미용화장지, 아기기저귀 등을 생산, 판매하였으며 현재 관련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국내외 대규모 경쟁사, 과잉 경쟁초래 주종 제품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환경 극복을 위해 인간존중, 가치창조, 고객만족 혁신주도, 사회공헌 등의 기업이념을 통해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하였다. 4조 3대체 체제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조' 운영은 노동자의 재충전, 평생학습,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일자리 확대 및 삶의 질 혁신 및 지적자본 육성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지식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 및 교양 학습 이수제 운영, 지속적인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도입하여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지식근로자 양성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해 IMF 금융지원 하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설비를 늘리면서 탁월한 생산성 향상을 이룩해 왔다. 1994년 당시 2,680억 원이던 매출액이 2003년 7,036억(순매출)으로 성장했으며, 순이익은 904억원으로 11배가 증가하는 뛰어난 경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현재 주요사업 전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뛰어난 경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